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독도의 가치 극대화 연구

이웅규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조교수

A Study on Maximization of Value of Dokdo as a Tourism Destination for Marine Education

Woong-Kyu Lee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Tourism, Baekse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독도의 가치를 평가하고 극대화시켜 독도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밝히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했다. 독도관광 활성화는 독도가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선행연구들을 문헌고찰하고 분석하였다. 국내외에서 발간된 다양한 연구논문과 정기간행물, 정부문서 등에 대한 고찰결과, 독도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애국심과 항일의식, 그리고 역사인식 등의 현장교육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관광지와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점, 둘째, 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의 자원적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보존 및 개발하는 것, 셋째, 독도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 할 것, 넷째, 독도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 다섯째, 현재 천편일률적인 독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울릉도와 연계한 다양한 해양교육 관광콘텐츠와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등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해양교육, 관광목적지, 독도 관광, 가치 극대화, 관광자원, 관광프로그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nd maximize the value of Dokdo as a marine educational tourism desti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the identification of Dokdo as a unique territory of Korea rather than a disputed territory by further activating Dokdo tourism. The revitalization of Dokdo tourism was reviewed and analyzed from the viewpoint that it is possible when Dokdo is recognized as a destination for marine educational tourism. As a result of reviewing various research papers, periodicals, and government documents published in Korea and abroad,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on-site education such as patriotism, anti-Japanese consciousness, and historical awareness in order to maximize value as a marine educational destination of Dokdo. Points out that it is possible to differentiate from other tourist destinations. Second, it pointed out that Dokdo preserves and develops to maximize the resource value of various tourism resources it possesses. Third, it pointed out to develop specialized tourism resources that can be linked with Dokdo tourism. Fourth, it pointed out that Dokdo will maximize its development potential as a marine educational tourism destination. Fifth,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educational program related to Dokdo. Finally, I pointed out that I would like to develop a variety of marine educational tourism contents and tourism programs linked with Ulleungdo.

Key Words : Marine Education, Tourism Destination, Dokdo Tourism, Value Maximization, Tourism Resources, Tourism Program

*This paper is based on the academic research grant of BaekSeok University in 2019. - 이 논문은 2019년 백석대학교 학술연구 지원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Woong-Kyu Lee(unikorea@bu.ac.kr)

Received May 31, 2019

Revised June 12, 2019

Accepted August 20, 2019

Published August 28, 2019

1. 서론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3·1 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운동의 주역들을 기념하는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며 독도 영토주권 수호선언을 발표하는 등의 프로젝트들이 최근 각광을 받았다[1]. 이에 독도에 대한 애국심,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관심뿐만 아니라 교육목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들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2]. 이런 상황에서 독특한 섬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울릉도 관광과 더불어 독도관광이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독도선화 관광 및 입도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체험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독도 교육이 독도에만 한정된 애국심 고취 등의 교육으로 인해 자칫 독도교육의 본질을 망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2-7]. 이에 본 연구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살아있는 독도를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장(場)을 제공해 독도영토주권 의식 및 독도 사랑 실천 및 해양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독도를 직접 가보지 못한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되는 독도 관광은 정부차원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독도 체험을 지원하면서 해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뛰어난 관광자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독도에 대한 관광학적 매력과 가치 연구에 초점을 두고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정치적·군사적 측면에 집중되었던 독도 연구[8-21]를 다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독도의 관광지로서의 가치와 독도 방문 관광객의 주된 관광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선행연구[16,22-34] 분석을 통해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독도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 평가를 통해 극대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째, 독도 관광이 지니는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독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휴식을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의 상징성과 자연 경관 때문에 방문한다는 관점에서 독도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도를 방문하는 해양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둘째, 독도의 관광지 가치를 기존의 애국심, 영토주권, 국토수호 등 상징적인 가치 외에도 독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는 점에서 해양관광객들이 독도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독도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를 명확하게 분석하겠다는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잠재 해양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관광학 측면에서 바라본 해양교육 차원의 독도 가치 연구는 해양교육 목적지로서의 미래 독도 관광 연구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실증 결과와 독도 관련 각종 문서와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특히, 독도 관련 신문기사와 통계자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정책보고서와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자료 분석은 독도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행하였고, 체계적인 분석과정을 거쳐 분류된 자료에서 공통 요소를 도출하여 독도관광에 관한 다소 추상적인 가치까지도 검토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독도 가치에 관한 내용분석을 통해 독도 가치를 분류하면서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유형화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독도의 가치 평가를 통해 독도 관광 활성화와 독도에 대한 해양교육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과제 해결에 기여할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 평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독도 가치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해양교육 관광목적지의 이해

관광목적지는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지각하는 가치에 특정 관광지만이 지니고 있는 기능적·비기능적 특성이 부가되어 관광객과 이성적(rational)·감성적(emotional)으로 연결됨으로써 관광객의 맥락적 경험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방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6,35,36].

따라서 해양교육 활동측면에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관광목적지로서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할 때는 관광상품의 주요소인 관광대상과 자원을 명확하게 해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독도방문 관광객에게 독도가 내포하는 다양한 의미전달과 더불어 관광현장에서 관광객의 지적 호기심과 교육적 욕구를 자극하여 독도를 체험하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관광자원 커뮤니케

이선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23-2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독도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해양관광객에게 알기 쉽게 독도관광상품의 매력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는 활동을 넘어 관광경험의 즐거움도 제공하고 다양한 흥미 요소를 포함하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가치까지 그 범위와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에듀테인먼트 관광 관련 연구는 특정 관광 상품에 대한 관광해설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관광객이 관광대상과 자원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 안에 내재된 의미와 매력성을 전달하는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있다[7,37,38]. 이런 서비스 프로그램이 독도 관광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독도를 재방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지속적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행동의도를 보인다는 김경미(2015)의 연구를 인용하면, 독도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가치평가 그리고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39]. 따라서 독도 관광과 관련한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발굴성과를 실증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뒷받침해주는 김경미(2015) 등의 이론적 체계구축과 준거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교육 관광목적지의 개념을 정리하면, “지적 호기심과 교육적 욕구를 위해 해양관광에 참여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해설 및 장소성, 그리고 관광경험을 하게 하여 관광만족과 긍정적인 행동의도에 이르게 하는 관광지”라고 할 수 있다[40]. 특히, 해양교육을 목적으로 관광활동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관련된 관광대상을 지각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를 활성화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교육 관광목적지의 특징은 첫째, 관광교육지도자의 교육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해양교육 관광목적지에 대한 정서적 이미지가 관광교육활동의 가치를 지각하는데 중요한 필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셋째, 관광만족에 의해 향후 재방문 의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41,42].

따라서 이와 같은 해양교육 관광목적지의 기본적인 특징을 고려한 실무적 차원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주목받는 해양교육 관광목적지가 되기 위해서는 방문가치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차별화된 관광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특화된 해양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교육 관광목적지의 성공여부, 즉 관광객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해서는 해양교육지도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질적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관광객이 관광교육을 받고 나서 관광목적지의 가치와 매력을 새롭게 느낌으로서 목적지 선택에 기여할 해양교육지도자의 실무 교육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적 관리방안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해양교육지도자의 교육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각 개별 자원의 테마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교육 내용으로 교육대상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관광스토리텔링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에게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피치, 이미지관리, 및 관광서비스 마인드 등의 주요 기법을 커리큘럼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해양교육지도자의 관광교육이 관광객 유치와 만족도를 높인다는 긍정적·실증적 효과를 선행연구[43-45]가 밝힌 만큼 관광객 유치와 만족도 개선을 위해 해양교육지도자의 자질과 품격, 자부심을 높여 지역관광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방향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동시에 해양관광 교육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接客서비스를 담당하는 해양교육지도자의 직무만족과 관련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며, 성과가 높은 교육지도자에게는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는 포상 및 인센티브제도 등을 시행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 전담 해양교육지도자 등의 별도 조직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만족도 개선 및 긍정적 확대, 재방문, 추천의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독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관광목적지에 대해, 즉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일본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외국인 해양교육전문지도자의 확대운영방안을 제도적·정책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2 해양교육 관광목적지 관련 선행연구 분석

곽진오(2015)는 중세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도가 복잡다단한 한일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끊임없는 대화와 증거를 통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4년 3월 초 일본외무성이 홈페이지에서 한국에 대해 사용해오던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는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독도를 비롯해 대한(對韓) 외교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진오(2015)는 독도가 오랫동안 한국의 영토주권 하에서 정책적·행정적인 관리를 받아 온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한일양국이 독도에 대해 양국의 견해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 나아가기 위한 대화의 단초는 '기본적인 가치를 한일양국이 공유하는 데서부터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46].

이충기(2013)는 2선 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독도의 보존가치를 평가하면서 독도 보존기금에 대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들을 확인했다. 그 결과, 독도의 보존가치는 연간 가구당 약 80,638원으로 추정하였고, 총 가치는 1조 3,982억원으로 평가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가설적 상황이 실제적 상황에 비하여 독도의 보존가치 지불확률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에 대해 보존가치를 3가지로 나누어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유산가치(53.8%), 존재가치(30.7%), 선택가치(15.5%)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로짓모델 분석결과 제시금액, 애국심, 지도도, 소득이 독도의 보존가치에 대한 지불의사확률을 예측하는 중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30].

2.3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평가

일반적으로 독도에 대한 지각된 가치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독도관광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각된 가치는 관광객들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도 방문 관광객들의 지각된 가치는 향후 독도관광을 위한 시장세분화 전략, 상품차별화 전략, 포지셔닝 전략,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것이며, 해양교육 목적지로서의 독도관광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개념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47].

한편, 독도 방문 관광객의 특징, 독도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 그리고 특정 상황에 따라 지각된 가치가 차별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독도관광에 대한 지각된 가치는 독도 방문 관광객들이 독도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후 어떠한 가치를 지각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독도의 가치를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나누고 있다.

Table 1. Study type of Dokdo value

Type	Researcher
Territorial value	W.K.Kim(2011), M.H.Kang(2017), B.S.Park(2011), C.G.Park(2005), S.H.Yoo, J.S.Lee&Y.K.Chung(2011), S.D.Lee(2008)
Economic value	S.H.Yoo, J.S.Lee&Y.K.Chung(2011), S.D.Lee(2008), S.K.Bae&C.O.Chu(2016), S.Y.Yang&H.S.Lim(2016)
Environmental / ecological value	S.H.Yoo, J.S.Lee&Y.K.Chung(2011), Y.D.Jang, J.H.Lim, S.G.Hwang&J.J.Kim(2009), S.R.Cho(2009),B.R.Ha&S.G.Lee(2015), S.D.Lee(2005), S.K.Bae&C.O.Chu(2016)
Historical / symbolic value	S.H.Yoo, J.S.Lee&Y.K.Chung(2011), J.Y.Lee&H.R.Lee(2016), C.W.Lee(2006), D.S.Lim(2010)
Educational value	J.B.Shim(2017), D.S.Lim(2010), K.H.Yi&H.G.Yuk(2012), J.S.Park(2010)
US value for Dokdo	B.J.Jeong(2005, 2006), B.H.Choi(2010), T.W.Lee(2016), S.K.Hong(2015), Y.K.Kim(2007), C.W.Lee(2006), Dean Rusk(1991), Korea Institute of Mental Culture(1999), 中保与作(1965),
Japan's value for Dokdo	B.G.Song(2005), S.H.Cho(2008), Y.K.Lee&S.H.Kim(2005), Kazariyan, R.(2206), 外山三朗(1979)
New tourist value	S.W.Kim&I.S.Choi(2002), H.K.Y대, D.H.Kim&J.S.Choi(2007), K.L.Ko(2007)
The value, title and prejudice of Dokdo	J.K.Choi(2012)
Cultural artistic value	Y.J.Chang, H.J.Lee&C.H.Kim(2014)

* Source: Author rewrite

2.3.1 영토적 가치 평가 연구

독도에 대한 영역적 가치 즉, 영토적 가치로 평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주변 바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독도와 같은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과 관련된 중요한 기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비행정보구역(FIR)을 설정하고 있는데, 독도 상공은 인천비행정보구역, 일본은 후쿠오카 비행정보구역, 북한은 평양 정보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서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일본이 제외하고 있으며, 일본 열도와 동해의 일본측 해역만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군사적 영토 인식에서는 미·일 모두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도가 항공과 방어 기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군사적·전략적 요충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지리적 위치상 동해의 어장 상황과 기상 상황 등을 관측·예보하는데 최적의 장소라는 점을 들어 김화경(2010, 2011)과 박창권(2005)은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13,14,17]. 이외에도 동해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의 임시 대피소로도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독도의 영토영역적 가치[48]는 군사안보적 가치[16] 또는 해양영토적 가치[29]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2.3.2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

독도는 다양한 수자원을 보유한 훌륭한 횡금어장으로 서 경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독도의 근해는 플랑크톤이 아주 풍부해 훌륭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한류와 동한난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구, 연어, 송어 등의 회유성 어종을 비롯해 오징어, 명태, 꽁치,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오래전에는 강치(물개)가 많아 어부들에게 인기가 높았으나, 지금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포획금지 대상이 되었다. 또한 해저암초의 문어, 다시마, 해삼, 미역, 전복, 김, 소라 등 해조류들이 많아서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48]. 특히, 독도는 소중한 에너지원인 천연자원을 보유한 곳으로 유명한데,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물과 메탄이 해저에서 높은 압력을 받아 형성된 메탄하이드레이트와 해양 심층수 등의 해저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이 얼음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한편, 해양 심층수의 경우는 세균번식이 없고 수온이 일정하여 식수뿐만 아니라 식품, 의약품 개발에까지 활용되는 중요한 해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외에도 섬 전체가 주상절리와 같은 화산지형과 다양한 해양지형 등으로 이루어진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관광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 중 으뜸이 되고 있다[49].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의해서 공개가 제한되었던 독도는 과거에 학술, 교육, 정치적 목적 외에는 입도가 안되었다. 이후 정부가 2005년도에 독도의 동도(東島)에 한해서 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한 우산문화제, 오징어축제, 울릉도·독도 탐사 해양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 및 민간단체들의 주체로 9~10월 중에 열리는 울릉도·독도 탐사 해양축제는 독도 대탐사, 해양생태 학술세미나, 울릉도 비경 살피기, 청소년 해양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50].

한편, 독도의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승준·이주석·정영근(2011)은 해양수산적 가치와 같이 정량화가 가능한 시장적 가치로만 논의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시장적 가치도 정량화하는 연구를 수행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독도 보전과 관리 정책의 방향 도출, 독도관리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독도 보전과 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 국민의 시각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의 근거와 방향 마련, 독도 보전과 관리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방안 마련 및 홍보의 기초 자료, 독도를 둘러싼 논쟁 발생시 정보로 활용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29].

2.3.3 환경·생태적 가치 평가 연구

독도는 해저 화산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여러 단계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어 다양한 암석과 지형, 지질 경관이 나타나 환경·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460만 년 전부터 약 5천년까지 일어난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동해에 위치한 울릉도·독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섬으로서 지질다양성이 뛰어나다. 이에 제주도와 함께 2012년 12월에 국내 최초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는 점에서 독도의 비시장적 가치인 지질·지형적 가치를 강조한 연구[29]와 지질·유산적 가치연구[49]도 있다. 이상돈(2008)과 하보름·이승곤(2015)은 독도가 많은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매우 높은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미적 가치 등을 지녔기 때문에 보전·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34,48].

장윤득·임지현·황상구·김정진(2009)도 독도를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였다[31]. 또한, 토양이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동해를 건너는 조류와 철새의 중간 서식지[32]인 독도는 동해안 지역에서 꿩이갈매기·바다제비·습새의 대집단이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독도 해조류 번식지'라는 명칭으로 1982년 11월 20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1999년 12월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독도의 특수한 해양 생물, 독특한 식물상과 지질적 가치 등을 고려한 정책결정이었다. 이와 같이 독도의 생물종은 기존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환경변화에 따라 사라지고 새로운 종이 다시 유입되는 과정을 거쳐 살아남아 우리나라 도서지방의 자연사를 파악하는데 좋은 교과서적 가치를 독도의 생물상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51]에서, 독도의 자연경관 및 천연자원, 파도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등 시청각적 가치를 지닌 환경요소들을 디지털 콘텐츠로 남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52].

2.3.4 역사적·상징적 가치 평가 연구

한국의 영토로서 오랫동안 존재하였던 독도는 역사적과 함께 실질적으로 한국이 점유하고 있다는 정치적 사실관계로 인해 한국의 자존심과 위상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상징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29,53-55]. 특히,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대중가요로 시작해서 반크(VANK) 등의 다양한 시민운동, 독도관광, 우표발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35년 6개월 동안 받으면서 겪어야 했던 갖은 수탈과 만행으로 인해 항일 정서에 보다 강인하게 새겨져 있고, 독도에 대한 애국심과 격한 나라사랑으로 표출되고 있다. 해양도서와 관련한 전세계의 많은 분쟁지역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독도에 대해 갖고 있는 것만큼의 정신적 일체감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분쟁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간에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은 대부분 자원 확보 등을 위한 경쟁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독도는 일본이 영토 분쟁화 하여 한일간의 외교마찰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모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55].

한국의 영토였던 간도지방을 청나라에 넘겨준 일본의 만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독도만큼은 우리 국민이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분쟁 재현은 우리 국민들의 민족의식을 다시 한 번 고취시키고 있고, 미래를 향한 한일 관계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대오각성(大悟覺醒)을 본 연구는 지적한다. 왜냐하면, 독도는 단순한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민의 자긍심과 건전한 한일관계, 그리고 다음 세대의 희망찬 미래를 밝힐 운명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2.3.5 교육적 가치 평가 연구

이는 독도의 가치를 독도의 도서적 특성과 관련해서 본 것으로서 독도가 경제적 기능(광물, 어류), 정치적 기능(세력 확장 근거지, 국가 위신 고양지), 전략적 기능(전략적 전진기지, 정박지), 영해 획정 근거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55]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로 영토 및 영해교육에서 본 독도에 대한 인식 연구[15], 초등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인식 연구[56]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박진숙(2010)은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에서 초등 독도교육의 목적은 독도의 경제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한국의 영토수호

와 애국심 고취와 함께 한국인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석하였다[57]. 이를 통해 박진숙(2010)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점 거세어지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독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의 경우 사례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 2009-2호)에 독도교육과정 운영 지원 내용을 분석하고, 교육감 인정도서인 ‘독도’교과서를 자체로 개발 및 활용하여 연간 10시간 이상 지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편성한 것을 확인했으며, 초등학생들의 독도 사랑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려 노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독도 교재 및 교수-학습 자료의 부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의 독도교육 시수 부족, 교사들의 독도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초등학교 전 학년용 독도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각 학교급간의 연계된 체계적 독도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등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독도교육 관련 활동을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활발하게 전개해야 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관심과 수호 의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독도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57].

2.3.6 미국의 독도에 대한 가치 평가 연구

세계2차 대전 후 미국과 소련 등은 오키나와 쿠릴열도 남사할린 등의 처리에 관심을 가졌다. 1943년 말 미 국무부산하에 “동아시아 담당 부처간 지역위원회(the InterDivisional Area Committee on the Far East)”가 설치되어 전후 패전 일본의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일 전후 목적”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영토문제가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다루어졌으나 류큐, 쿠릴열도, 보닌섬들 등에 대한 처리에만 중점을 두었고 한국의 경우에는 독립과 전후(戰後) 국제적 감독 문제만 논의되었다[54]. 이에 따라 독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언급될 여지가 없었다. 특히, 전후(戰後)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화조약과 미군 주둔문제에 대한 교섭담당자였던 딘 러스크는 독도문제를 평화조약에서 사소한 문제로 인식함에 따라 1951년 8월 한국정부에 보내는 서한에 독도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섬’이라고 하였다[21,58].

미국 정부도 1954년에 독도를 논의할 때 ‘리앙쿠르섬’은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나 사람이 살지 않는 불

모(barren)의 바위들'이라고 정리하였고, 미 극동사령부 역사실에서는 독도를 '황량한 섬(a desert island)'으로 인식하였다. 미국가안보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자는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 때 한일관계에 있어서 중요 이슈는 청구권, 어업협정 등이라고 생각했고, 독도는 작은 문제(minor issues) 중의 하나로 '하찮은 섬(an inconsequential islet)'으로 취급하였다[59].

이와 같이 독도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 이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총사령부가 일본 은행 및 재무부 전문가와 함께 전후 일본의 재외재산평가를 실시했는데 한국, 만주, 북중국, 타이완 등지에 남아 있는 일본재산이 총 240억 달러이고, 그중 한국에 있는 그들의 재산 규모를 52.8억 달러 규모로 평가해 전체의 22%를 차지했던 것으로("SCAP to WARCOS for Dpt of State: Estimate of Japanese External Assets" Dec. 9, 1946, 군사편찬연구소, MF 159) 이해했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의 재산을 포기하고 독도를 포함한 한국내 재산문제 등을 상쇄시킬 목적으로 일본이 미국을 설득하였지만 결국 미국은 한국 측이 강화회의에 참석을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는 대신에 한국 내 일본재산권 주장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주장 등에서도 확인된다[60]. 그런데 시볼드(William J. Sebald)가 1949년 11월 14일에 버터워스(Walton Butterworth)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에게 "리앙쿠르암(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 섬에 기상관측소와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안보적 고려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했다[61]는 자료를 보면, 독도가 미군의 전진 레이더기지로써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의견으로서 독도를 소홀히 했다는 기존의 미국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후 남한 미군정 관할 아래에 있는 독도를 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이용한 미국 측은 일본 정부의 설득과 제안을 받아들여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47년 9월 16일 훈령 제1778호로 독도를 극동공군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한 것에서도 확인된다[62]. 이미 일본은 물론 필리핀, 남한 지역을 작전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미(美) 극동군사령부는 1947년 1월 1일부로 연합국총사령부와 분리되어 창설되었다. 이것 때문에 미 극동군사령부는 작전지역을 한국의 울릉도와 독도 지역, 그리고 일본과 구분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 국무부 동북아시아과는 미·일합동위원회(US-Japan Joint Committee)가 독도를 일본 정부시설

로 지정한 것이 정당함으로 한국정부가 독도를 포함한 여러 섬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을 정지시킨(suspended) 훈령 제 677호에 의한 주장에 의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주일 미군이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고 나서 미 공군의 훈련과정에서 독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인 어선을 공격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울릉도부근 독도에서 미역을 따고 있던 어선 15척이 1948년 6월 8일 오전 12시경에 난데없는 비행기의 폭격을 받으면서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독도 관할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63]. 독도에서는 1947년 4월 16일에도 이와 비슷한 폭격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없어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 되었고, 이후 1952년 9월 15일에도 폭격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64]. 이런 지속적인 폭격사건을 계기로 미군 당국은 1953년 1월 독도를 폭격연습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미군은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해제할 때 미일안보협약에 의거한 '미일합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확인을 했다. 이에 일본 내무성은 1953년 3월 19일 고시 제28호로 해제사실을 공시하였다는 점[65]에서 주미 일본 대사 시마(Shigenobu Shima)가 1954년 11월 17일에 미 국무부를 방문하여 주일 미군이 일본정부의 승인아래 독도를 군사시설로 이용하고 후에 반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들어 미군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인정했 것이라고 역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당시 공보처장을 맡고 있던 이철원은 우리 어부들이 불의의 참변을 당하여 당시 경북지사 조재천의 명의로 위령비를 세운 일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인의 망설과 야욕을 철저히 분쇄하였다. 하지만 독도폭격사건에 대해 당시 남한 미 군정(軍政)은 극동사령부에 미루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독도 귀속문제는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아서 지금도 일본의 망언과 외교적 무례가 이어지고 있다.

2.3.7 일본의 독도에 대한 가치 평가 연구

1905년 1월 일본정부는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으로 편입하면서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독도주변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수역이라는 군사적 측면에서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이로 인해 독도가 동해에서 러시아 발틱함대와 교전하던 일본해군의 작전에 크게 기여했다. 독도와 본토를 잇는 해저선을 부설한 일본 해군은 울릉도에 설치된 감시망루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항해 중인 러시아 군함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도쿄(東郷平八郎) 함대가 러시아 태평양 제2, 3함대를 격파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해군은 1905년 5월 하순 해전이 끝난 후인 7월22일에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가 10월 16일 포츠머스조약이 발표되면서 러일전쟁이 끝나자 독도 망루의 필요성이 없어져 철거했다[66]. 이는 독도를 강제로 편입했다는 국제사회의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10월 19일에 독도 망루 철거가 결정되었는데, 러일전쟁 종전(終戰) 4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후 일본대본영은 연합군최고지휘관에 대해 연합국총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에 의거하여 '일본 및 일본이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 관한 지상, 항공, 방공부대의 장소, 연안방어시설, 해군함정, 병력 등에 대한 완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독도에 설치된 망루는 이미 철거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으로부터 연합국총사령부에 특별한 보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67-68]. 최근 연구에서도 러시아에는 일본이 독도를 소유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상을 통과하는 거의 모든 국가의 선박 항해가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69-71].

2.3.8 새로운 관광적 가치 평가 연구

고경래(2007), 김상완·최인섭(2002), 여호근·김대환·최정순(2007)은 독도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산업적 활용을 통해 독도의 새로운 관광적 가치를 부각시키자고 주장하였다[22,28,52].

2.3.9 독도의 가치·명칭·편견에 대한 연구

최장근(2012)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독도의 "가치·명칭·관리"에 대해 지니고 있는 편견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독도의 가치에 대해 고찰하면서 독도의 특징을 암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대에서 현대까지 섬의 가치가 바뀌어왔다고 주장했다. 섬에 대한 가치는 인간이 평가하는 것으로서 섬의 가치가 높을수록 섬에 대한 인간의 독점 욕구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취했던 조선 중기는 상징적 가치로 '경계의 일부'로, 조선 말기 울릉도 개척시대에는 영토 의식을 가지고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였다. 둘째, 명칭에 대해 고찰하면서 섬의 가치가 발생하면 소유의식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소유의식과 함께 섬의 이름이 생기는데, 독도도 시대상황에 따라 섬의 가치가 생길 때마다 다양한 명칭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우산도, 석

도, 독도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실효적 관리에 대해 고찰하면서 독도는 작은 암초로 이루어진 특징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넓은 토지를 관리하는 형식과는 다르게 독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정착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섬이 아니라서 독도에 대해 중앙 정부가 영토 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있을 때는 영토 측면에서 지켜왔다고 조금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걸쳐 독도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일본측의 주장 중 강치 어업만 실효지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일본의 강치 어업에 의해 독도의 강치가 전멸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한 경제적 약탈행위일 뿐이라고도 주장했다[33].

2.3.10 독도에 대한 문화예술적 가치 평가 연구

장운정·이호진·김재한(2014)의 지적처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독도를 기존의 정치적·경제적·국제법적·역사적 영토 개념 대신에 문화예술적 영토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72]. 배타적 관할권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기존의 영토 개념에 비해서 문화예술적 영토 개념은 국가를 초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더 가깝고, 특히 탈근대적 영토 개념에도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운정·이호진·김재한(2014)은 문화예술적 영토가 공존과 상생적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독도라는 지역을 장소 특정적 미술과 결합시켜 평화적인 문화예술적 영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장소의 시각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 장소특정적 미술은 공공성과 예술성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독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장소특정적 미술 설치를 예시하기 위해 기존의 장소특정적 미술 사례들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갈등의 소멸과 평화의 생성을 담은 내용을 제시하면서 독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강조하였다[72].

2.4 관광객에게 지각된 독도에 대한 가치

독도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가치 외에 San Martin & Del Bosque(2008)과 Sánchez-Fernández & Iniesta-Bonillo(2007)의 연구에서처럼 일반적으로 관광객에게 지각된 가치는 관광이 끝난 후에 관광객들이 느낀 관광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그리고 머릿속에 남아 있는 투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적 차원, 감정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가치로 분류될 수 있다. 이를 독도 관광의 가치 평가에 적용하여 보면 독도의 해양생태환경의 기능적 가치, 일본의 독도 침략행위에 대한 감정적 가치, 이에 대한 항일의식과 애국심 고양 등의 사회적 가치로 분류할 수 있다[73,74].

반면, Nina Prebensen, Kåre Skallerud, & Joseph S. Chen(2010) 등이 관광객이 관광활동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심리적인 결과로써 관광객들이 관광 상품의 질(質)과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가치를 지각된 가치라고 지적하였는데[7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독도 관광이 끝난 후 관광객들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가치는 독도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와 교육문화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치는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문화인류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주제로 다루어왔고 연구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행동과학이 인간의 동기와 태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의사결정 측면에서 가치 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는 개개인의 선호도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가치는 인간의 삶에서 본능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있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형성된 신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간의 정신적 욕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다른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사회에서의 갈등, 해결, 의사결정, 관계 등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가치는 목적가치(Object Value)와 개인가치(Individual Value)로 구성되어 있다[76,77]. 특정목적과 관련된 목적가치는 확득한 목적과 다른 목적과 비교가 이루어지며 이것이 획득되어졌을 때 지불되는 수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 개인에 의해 소유되어지는 개인가치는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목적가치들에 대한 많은 지식을 창출시켜주고 있다[78,79].

그런데, 가치(價値)는 태도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인데[80],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잘 정제된 믿음-태도-가치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가치는 하나의 특별한 목표나 상황에 묶여있지 않는데 반해 태도(態度)는 어떤 특정한 목표나 상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81]. Rokeach(1968)는 가치를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은 이상적인 최종상태나 개인의 이상적인 궁극적 양식 또는 행동양식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넘어 행동이나 판단을 이끄는 광범위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81]. 인간의 의식체계는 신념(belief), 태도(attitude), 가치(value)에 의해 체계적으로 소비경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Rokeach(1968)는 가치를 개인의 행동과 판단을 이끄는 하나의 신념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즉, 가치가 개인이 선호하는 행동양식을 버리고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의 최종상태를 바람직한 상태의 존재로 최종상태를 만들게 하는데, 이를 구분하면 수단가치(instrumental)와 최종가치(terminal value)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인간 개개인에 의하여 개발되고 습득되고, 가치는 개개인의 필요나 상황에 따라 그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인간의 행동 양식에 상황 여건을 반영한 바뀐 형태의 다양한 가치들이 적용된다고 지적하였다[82]. 아울러 인간들의 인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가치 때문에 태도와 비교하면 오랜 시간 가치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82]. 그에 따라 특별한 상황 하에서 가치는 태도보다 인간의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일부 연구에서 가치가 태도에 비해 더욱 효과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수들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인구 통계적 특성보다 동기행동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83]. 결국, 가치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인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의사결정의 한가운데서 작용하고 있고 우리 인간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84].

이런 관점에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가치를 분석하면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독도를 선택하고 있고, 각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특히, 독도방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광객은 최종목적지 결정에 있어서 독도가 가지는 특성에 기인하여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데[85],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관광목적지의 속성(destination attributes)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들을 유형화하는 방법은 학자들의 연구목적과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현재까지의 연구 분석 결과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독도 선택속성은 자연적 매력물(기후, 경관의 아름다움, 해변과 바다, 동식물군 등), 문화적 매력물(역사적, 문화적 장소와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관습, 흥미 있는 경제적 활동 및 독도 지역 등의 인간의 활동), 특별한 매력물(독도 내의 과거 각종 행사 및 전통어로방법 등), 욕구만족차원(독도의 기후, 즐거움, 다양성, 행복감, 특별한 야외활동, 사람들과의 만남, 도전성, 휴식, 매력적인 자연환경), 사회적 차원(애국심, 항일의식, 역사의식 등), 여행능력차원(금전, 건강, 시간, 안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광목적지 속성이 관광객을 독도로 유인하는 요인이라는 의미에서, 독도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

서의 관광 상품적 특성을 지칭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객이 관광지의 서비스나 유인물에 근거하여 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대안적 목적지 중에서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데에 기여하는 관광목적지 선택 속속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86]. 왜냐하면 관광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관광객은 관광지의 속성 비교와 평가를 통해 관광지를 선호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87]. 이에 관광지의 속성을 관광지 선택 결정요인 또는 관광지 선택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경우에 따라 관광지의 매력요인으로 또는 참여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40]. 결국 이러한 점을 고려한 독도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 선택을 하게 하는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3.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 극대화 방안

최근 국제 사회에서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차원의 독도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도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 극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독도 해양교육에 대한 관심과 국민적 소양을 넓히는 프로그램 발굴에서부터 독도에 대한 기본 지식 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역사교육, 경제교육, 영역(영토)교육, 자원 및 환경교육 측면을 고려한 독도 해양교육의 틀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독도에 대한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학습은 지명학습, 지도 학습의 차원에서 관광교육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역사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관광스토리텔링교육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야 한다. 즉 독도를 중심으로 사과의 외연을 확대시켜주고,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 누락되어 있는 독도 관련 다양한 해양콘텐츠 학습을 독도 해양교육 관광 상품 프로그램 개발시 관련 내용 및 교재의 구성단계에서 개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독도 관련 해양지리교육 내용 중 독도 관련 단원을 학습할 때 탐구활동과 읽기자료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88].

또한, 독도 가치 평가가 개인가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독도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Fig.1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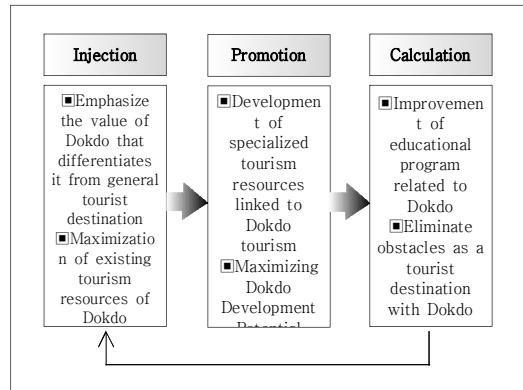


Fig. 1. Maximization of Dokdo Value by Stage

3.1 일반 관광지와 차별화되는 독도 가치 강조

독도를 통해 애국심과 항일의식, 그리고 역사인식 등의 현장교육을 함께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관광목적지와 차별화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독도 방문 관광객의 성공적인 독도 입도를 위한 장점을 흡수하여 관광 가치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공적으로 독도관광을 선택한 관광객들의 속성들을 살펴 관광 가치를 높이고 독도 입도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이야기 거리들과, 밖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 등 두 가지 효과를 강조하여 해양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독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역사적 흐름과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한 영토 가치를 극대화 하고, 독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이야기나 스토리텔링들도 해양교육 차원에서 적극 고민해야 할 것이다.

3.2 독도의 기존 관광자원 활용 극대화

독도의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2009년 6월을 기점으로 기존의 1일 입도 제한 인원(1,880명)도 폐지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독도 체류 시간은 대부분 20~30분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람 구역이 동도 접안시설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4~6월에는 수많은 썬이갈매기가 산란기가 되어 보호를 목적으로 독도관광이 제한되는 등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피하여 독도관광을 하게 하고 다른 대체 관광자원을 연계개발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도에는 촛대바위, 삼형제굴바위, 한반도바위, 독립문바위 등 기묘한 바위들과 갖가지 단층들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등 지질학의 보고(寶庫)라는 점을 활용하여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썬이갈매기, 기묘한 바위 등 독도

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의 자원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보존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3.3 독도관광과 연계되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

독도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특화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독도의 우수한 해양관광자원과 연계된 내륙형 체험중합관광지를 울릉도에 조성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을 유도하는 것이 독도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독도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울릉도 지역 네트워크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울릉도 주변 관광 시설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극대화의 지름길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3.4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독도 개발 잠재력 극대화

독도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독도 관련 핵심시설을 특색 있게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장·단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독도 개발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도와 울릉도 지역의 낙후된 관광이미지 개선과 관광브랜드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울릉도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울릉도 지역주민 참여 및 주도적인 추진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울릉도·독도 지역의 다양한 특산물의 고급화를 위한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독도 주변지역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역주민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독도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3.5 천편일률적인 독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선

현재의 독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점을 개선하여 독도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즉, 대부분의 독도 교육 프로그램은 독도공감 프로젝트! 신나는 오리엔테이션, 교실에서 떠나는 독도 여행, 우리 땅 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우리 손으로 만든 독도, 독도 생태 깃발 휘날리며, 시(詩), 독도와 만나다, 나는 작곡가다!, 독도 수학(數學) 여행, 독도와 함께 춤을~, 독도 시간 탐험대, 독도를 디자인하다, 독도 명함 제작소, 우리 안의 독도를 세계로, Ready! Action! #1. 독도-독도 광고 영상 만들기, 독도

체험 학습 자료, 독도전시관·체험관 현황 등으로 이루어져 독도 교육에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독도 이외의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마련을 통해 21세기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교육에만 매몰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독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발굴에 적극 나서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울릉도와 연계한 다양한 해양교육 관광콘텐츠와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3.6 독도가 지닌 관광지로서의 장애요인 제거

유영준(2007)은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울릉도·독도의 역사적 상황 전개가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독도관광의 가치를 고양시킨다고 지적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7]. 이런 측면에서 독도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독도가 지니고 기후 특성, 접근성, 관광지 개발의 한계상황과 관광지로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관점에서 울릉도와의 연계 관광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독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독도관광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된 교육적인 관광 상품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독도와 연계한 울릉도의 해양교육 관광 콘텐츠 및 관광프로그램을 독도관광의 대표적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4. 결론

1,500여 년 전부터 우리의 땅으로서 대한민국의 동해를 지켜온 독도를 한국관광의 대표 지역으로 활성화시키고, 해양관광, 교육관광, 문화관광, 생태관광 등 세계적 관광추세에 부합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그 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독도를 차별화하여 해양관광의 시대를 선도함으로써 국내외에 우리나라의 영토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독도관광의 활성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2012년부터 독도전시관을 구축·운영하면서 2017년 10월 16일에는 경상북도교육청에 독도전시관을 마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독도전시

관은 학생과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 생생하게 느끼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도 관련 전시물을 기획·구성해 놓은 곳이다. 독도전시관에는 독도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1/500로 축소한 독도 모형을 중심으로 독도의 자연과 생태계를 영상 자료와 함께 전시해 놓았다. 특히, 독도 관련 국내외의 사료와 지도 등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시·구성함으로써 독도가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독도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독도 영상관과 가상현실(VR) 프로그램 운영, 독도 관련 올바른 이해를 중심으로 ‘독도 사랑 실천 독도신문 키오스크(Kiosk)’, 독도퍼즐 포토존 조성, 독도 엽서쓰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이를 실제 독도 관광과 연계하여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독도의 전반적인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여건을 검토하고, 세계적 해양관광수요를 유인할 수 있고 독도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독도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독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였으며,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관련기과의 연계 관광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독도의 해양교육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평가 연구를 통한 이론적 연구와 학문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는 설문조사와 관찰법 등의 실증연구를 통해 실제로 독도에 대해 느끼는 국내외 관광객의 가치 평가 차이와 실무적 기여방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는 현재 이론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연계성을 극대화 한 관광상품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REFERENCES

- [1] 3.1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ovement: Celebrate with the footsteps of the last 100 years, the beginning of the new 100 years. (2019. 2. 2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2] H. D. Kim. (2011). Pursuing Systematic Class Dodkdo Education. *The Journal of Dokdo*, 11, 53-81.
- [3] J. S. Park. (2010). Status Quo and Problem of Elementary School Dokdo Education -focused on elementary school Dokdo education operation among schools in Gyeongsangbuk-do province education office-. *The Journal of Dokdo*, 8, 121-150.
- [4] T. Y. Seo. (2012). Education on Dokdo and East Sea in Secondary Geography Textbook from 1945 Liberation to 1950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1(1), 1-9.
- [5] H. Y. Song. (2011). Analysis of Contents Related to Dokdo in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Journal of Photo Geography*, 21(3), 17-35.
- [6] H. Y. Song. (2012). Analysis of Contents Related to Dokdo in High School Korean Geography Textbooks. *Journal of Photo Geography*, 22(2), 53-69.
- [7] Y. J. You. (2007).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Edutainment Tourism in Ulleungdo.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22(1), 177-197.
- [8] J. W. Kim & W. S. Jho. (2018). A Study on the Change of North Korea's Attitude toward Korea-Japan Dokdo Conflict. *Information Society & Media*, 19(2), 169-189.
- [9] C. H. Kim, Y. S. Cho & J. H. Lim. (2013). The Selectorate Theory and Japanese Policies for Dokdo.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7(5), 431-457.
- [10] T. W. Kim. (2011). Military Backgrounds and Progresses of Bombing of Dokdo Island by the USAF, 1948. *Dongbuga Yeoksa Nonchong*, 32, 375-411.
- [11] H. D. Kim. (2008). The Historical Change of Ulleungdo·Dokdo's Status in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23, 187-214.
- [12] H. D. Kim. (2010). Japan's Ulleungdo-Dokdo Policy during the Meiji Era. *Journal of Japanese Culture*, 46, 65-90.
- [13] W. K. Kim. (2011). The Battle of East Sea and Dokdo's Strategic Value -Focused on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Forced Seizure of Dokdo by Japan-. *DAEGUSAHAK*, 103, 149-176.
- [14] M. H. Kang. (2017). The Value of Stories of Historical Figures and a Consideration of the Stories: Focused on Ahn Yong Bok. *DONGAINMUNHAK*, 39, 49-74.
- [15] J. B. Shim. (2017). Exploration of Contents related to Dokdo Between Modern Korea and Japan Geography Education. *The Journal Of Dokdo*, 23, 421-459.
- [16] B. S. Park. (2011). Russo-Japan War and Dokdo Value. *The Journal Of Dokdo*, 10, 203-234.
- [17] C. G. Park. (2005). Dokdo Offshore Marine Resources and Strategic Value. *Military Forum*, 44, 6-27.
- [18] J. K. Shim. (2013). Strengthening the Sovereignty(Effective Domination) of Dokdo through Effective Value Crea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1-63.
- [19] K. W. Lee. (2012). Japan's 'Dokdo' Policy and 'Dokdo Question' - Case of the dispute about a visit of members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o Ulleung Island. *Peace Studies*, 20(1), 139-167.

- [20] S. H. Lee. (2015). Japanese Policies for Dokdo and Korea-Japan Relations. *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36(2), 137-166.
- [21] B. J. Jeong. (2006). Korea-Japan Dispute on the sovereignty over Dokto Island and the role of U.S. *YÖKSA WA HYÖNSIL*, 60, 3-16.
- [22] S. W. Kim & I. S. Choi. (2002). The value of Dokdo as a tourist destination. *Proceedings of the 51th Korean Tourism Society Conference*, 448-459.
- [23] S. I. Kim. (2014a). The relationship among motivation, destination image, satisfaction and loyalty of Dokdo Tourist. Ha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 [24] S. I. Kim. (2014b). Why do people go to Dokdo, what they are satisfied with and what they seek. *Proceedings of the 75th Korean Tourism Society Conference in Jeonbuk*, 75(1), 459-477.
- [25] S. I. Kim & C. Jeong. (2015). The relationship among Motivation, Destination Image, Satisfaction and Loyalty of Dodo Tourist.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17(1), 388-408.
- [26] T. K. Kim, C. K. Lee & D. E. Lee. (2014). Measuring Willingness to Pay for Attributes of Ecotourism in Dokdo Using A Choice Experiment.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8(1), 137-154.
- [27] D. S. Shin.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okdo Tourism Product. *International Tourism Industry Research*, 2(3), 7-52.
- [28] H. K. Yeo, D. H. Kim & J. S. Choi. (2007). Relation between Tourism Attractions as Marine Tourism Resources and Tourism Development Type in Dok-do.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9(2), 407-425.
- [29] S. H. Yoo, J. S. Lee & Y. K. Chung. (2011). Assessment of Non-market Value of Dokdo. *Ocean and Polar Research*, 33(3), 223-233.
- [30] C. K. Lee. (2013). Estimating the Preservation Value of Dokdo: Using Two Stag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7(4), 117-139.
- [31] Y. D. Jang, J. H. Lim, S. G. Hwang & J. J. Kim. (2009). Value and Strategy of Ulleungdo-Dokdo as World Geopark. *2009 Autumn Geological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45-55.
- [32] S. R. Cho. (2009). Ecological value of Dokdo and migratory birds. *Yeongnam University Dokdo Research Institute Conference*, 109-118.
- [33] J. K. Choi. (2012). Research about the Prejudice(Value-Name-Management) of Dokdo Territory Right Problems.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38, 131-151.
- [34] B. R. Ha & S. G. Lee. (2015). Estimating the Preservation Value of Ulleung Island's Natural Tourism Resources: Ulleung Aripport constr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9(2), 5-18.
- [35] S. Hosany, Y. Ekinici, & M. Uysal. (2006). Destination image and destination personality: An application of branding theories to tourism plac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9(5), 638-642.
- [36] A. M. Morrison. (2013). *Marketing and Managing Tourism Destinations*. Routledge.
- [37] E. Hertzman, D. Anderson & S. Rowley. (2008). Edutainment heritage tourist attractions: a portrait of visitors' experiences at Storyeum.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23(2), 155-175.
- [38] Isacsson, A. & Gretzel, U. (2011). Facebook as an Edutainment Medium to Engage Students in Sustainability and Tourism.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Technology*, 2(1), 81-90.
- [39] K. M. Kim. (2015). A study on the tourism interpretation and destination image. Jeonju University Doctoral Thesis, 1-181.
- [40] Y. R. Heo. (2011).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the personal value, lifestyle, motive and attractions of visitorson marine tourism destination. Sejong University Ph.D thesis, 1-135.
- [41] Y. J. You & K. H. Lee. (2006). A plan to revitalize Ulleungdo education tourism in connection with Dokdo.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Value of Ulleungdo and Dokdo*, 89-140.
- [42] B. M. Son. (2011). The Effect of Destination Choice Attributes on Perceived Value and Loyalty of Tourist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26(1), 201-228.
- [43] S. M. Yoon, J. A. Park & C. K. Lee. (2012).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Attractive Attribute, Satisfaction, and Loyalty of Ancient Palace as Cultural Tourism Resource: A Case of Visitors to Gyeongbok Palace. *Seoul Studies*, 13(1), 149-166.
- [44] Atay, Lütfi & Yildirim, Haci Mehmet. (2009). Determining Factors that Affect Satisfaction of Students in Undergraduate Tourism Education. *An International Multidisciplinary Journal of Tourism*, 5(1), 73-87.
- [45] Swarbrooke, J. & Horner, S. (2007). *Consumer Behaviour in Tourism*. Routledge.
- [46] J. O. Kwak. (2015). Look Over on Dokdo : Focus on Middle Ages, Modern Ages, and the Post-War Era. *Journal of Korean-Japanese Military and Culture*, 20, 189-218.
- [47] Woodruff, R. B. (1997). Customer Value: the Next Source for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5(2), 139-153.
- [48] S. D. Lee. (2008). Studies on the Change and Conservation of Avifauna in Dok-do and the Surrounding Islands. *Korean Journal of Nature Conservation*, 2(1), 65-73.
- [49] S. K. Bae & C. O. Chu. (2016). Geological heritage of the Ulleungdo-Dokdo National Geopark and its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 of Korea, 52(5), 739-761.
- [50] S. Y. Yang & H. S. Lim. (2016). Developing tourism souvenirs of Samcheok-si -by applying symbol motif from the Isabu & Dokdo Festival-.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53, 153-162.
- [51] M. G. Kim. (2011).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of the Dokdo coast due to climate chang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 Conference*, 21(1), 6-13.
- [52] K. L. Ko. (2007). The Way of Developing & Making use of 'DOK-DO' Culture Content. *Journal of Cultural Industry Studies*, 7(1), 5-24.
- [53] J. Y. Lee & H. R. Lee. (2016). A Study on the 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Dokdo Special Interest Tourists Motivation and Citizenship Behavior: A Research Ba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Tourism Commitment.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0(2), 101-122.
- [54] C. W. Lee. (2006). Sovereignty dispute in Northeast Asia and Korea's response strategy. Seoul : Downsam, 1-293.
- [55] D. S. Lim. (2010). The validity of Dokdo in Korea: Political geographical perspective.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2010 Annual Conference*, 53-62.
- [56] K. H. Yi & H. G. Yuk. (2012). Children's Basic Knowledge and Cognition on Tokdo-Island,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Education*, 20(1), 23-32.
- [57] J. S. Park. (2010). Status Quo and Problem of Elementary School Dokdo Education -focused on elementary school Dokdo education operation among schools in Gyeongsangbuk-do province education office-. *The Journal Of Dokdo*, 8, 121-150.
- [58] Dean Rusk. (1991). Memorandum of the Cold War. Seoul : SIKONGSA, 1-492.
- [59] Korea Institute of Mental Culture. (1999). Establishment of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 and the May 16, 1-283.
- [60] Junpaku Nakayasu. (1965). Clearing an Unusual Past-14 years of Japan-Korea negotiations. *World Weekly Report*, 46(15), Newsletter Press: 20-25.
- [61] B. J. Jeong. (2005). William J. Sebald and his role in the beginning of so-called Dokto Dispute. *Critical Review of History*, 71, 140-170.
- [62] B. H. Choi. (2010).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nd Sovereignty over Dokdo Islet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4(2), 217-241.
- [63] T. W. Lee. (2016). A Study on Development and Background of Dokdo Bombing Accident in 1948. *The Journal Of Dokdo*, 20, 121-141.
- [64] S. K. Hong. (2015). An Analysis on Legal and Diplomatic Implications of Two Issues on Dokdo: The Korean Proclamation of the Peace Line and the Japanese Designation of Dokdo as a Bombing Range. *The Journal Of Dokdo*, 18, 167-192.
- [65] Y. K. Kim. (2007). Suggestions for peaceful settlement of Dokdo issue. *The Journal Of Dokdo*, 3, 169-184.
- [66] B. G. Song. (2005). The rewritten Ulleungdo and Dokdo. Dankook University Press, 1-324.
- [67] M. K. Kim. (2014). Dokdo Dominion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 Centering on the recovery of the suspended title. *The Review of Isabu and East Sea*, 7, 55-83.
- [68] S. H. Cho. (2008). The U.S. Strategy Toward Japan After the World War II and the Dokdo Issue. *RIAS*, 17(2), 41-80.
- [69] Y. K. Lee & S. H. Kim. (2005). The story of Dokdo in Japan. Seoul : Yenaroo, 1-319.
- [70] Kazariyan, R. (2006). About the problem of Dokdo. *Yeongnam University Dokdo Research Institute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71-77.
- [71] Saburo Toyama. (1979). Japan-Chinese-Japan-Russia: History of Daito-Honkai. Tokyo: Hara Shobo, 250-255.
- [72] Y. J. Chang, H. J. Lee & C. H. Kim. (2014). A Site-specific Art in Dokdo as an Artistic Territory. *Territory and Seas*, 7, 180-205.
- [73] Sánchez-Fernández, R. & Iniesta-Bonillo, M. Á. (2007). The concept of perceived value, a systematic review of the research. *Marketing Theory*, 7(4), 427-451.
- [74] H. San Martín & I. A. R. Del Bosque. (2008). Exploring the cognitive, affective nature of destination image & the role of psychological factors in its formation. *Tourism Management*, 29(2), 263-277.
- [75] N. Prebensen, K. Skallerud, J. S. Chen. (2010). Tourist Motivation with Sun and Sand Destinations: Satisfaction and the Wom-Effect.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27(8), 858-873.
- [76] G. Lan, Z. Ma, J. Cao & H. Zhang. (2009). A comparison of personal values of Chinese accounting practitioners and students. *Journal of Business Ethics*, 88(1), 59-76.
- [77] L. Ledden & S. P. Kalafatis. (2010). The impact of time on perceptions of educational valu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23(2), 141-157.
- [78] N. T. Feather. (1995). Values, valences, and choice: The influences of values on the perceived attractiveness and choice of alterna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6), 1135.
- [79] V. A. Zeithaml. (1988).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quality, and value: a means-end model and synthesis of evidence. *Journal of Marketing*, 52(3), 2-22.
- [80] E. C. Tolman. (1952). A cognition motivation model. *Psychological Review*, 59(5), 389-395.
- [81] M. Rokeach. (1968). A Theory of Organization and Change Within Value-Attitude Systems. *Journal of Social Issues*, 24(1), 13-33.

- [82] M. Rokeach.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Free press, 42-94.
- [83] D. E. Vinson, J. E. Scott & L. M. Lamont. (1977). The role of personal values in marketing and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41(2), 44-50.
- [84] W. A. Kamakura & T. P. Novak. (1992). Value-system segmentation: Exploring the meaning of LOV.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1), 119-132.
- [86] Y. H. Joo & D. H. Son. (1998). A Study of Skiers' Resort Marketing Strategy by Their Behavior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Tourism Development*, 9, 272-299.
- [87] J. F. Engel, R. D. Blackwell, & P. W. Miniard. (1986). *Consumer Behaviour*. Dryden, 43-117.
- [88] O. K. Yoon. (2007).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in Geography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7(1), 55-64.

이 웅 규(Woong-Kyu Lee)

중산학원



- 1991년 2월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문학사)
- 1993년 2월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관광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관심분야 : 관광, 축제 및 이벤트, 테마파크, DMZ 및 접경지역, 문화예술경영, 기후변화, 외식프랜차이즈
- E-Mail : unikorea@bu.ac.kr